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9호 【부제 제25482호】 주제 105 (2016)년 12월 4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 2016》을 지도하시였다

온 나라 천만근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함북도피해복구건설에서 새인을 놀때우는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총정의 20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과감히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6》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6》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황병서 동지, 리명수 동지, 박영식 동지, 리영길 동지, 조남진 동지, 조경철 동지, 최영호 동지, 손철주 동지가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인 리수용 동지, 리만건 동지, 오수용 동지, 김영철 동지, 리일환 동지, 리영패 동지, 리병철 동지와 인민군장병들이 경기를 보았다.

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비행장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어 있었으며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군이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항일의 7번째, 전화의 근위부대가 되자!》, 《모두다 주체적인 항공 및 반항공군전법에 정통하자!》,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

라는 구호들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6》이라는 글발이 세워져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오전 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철주 동지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

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이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경기대회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은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위대한 기수가 되시어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6》은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비행사들을 완벽한 실천능력과 지휘능력, 높은 비행술을 소유한 일당백의 만능비행사들로 믿음직하게 준비시키고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 펼쳐나선 전군의 장병들의 거세찬 훈련열, 투쟁열, 경정열을 더욱 고조시키는 함으로 의의깊은 훈련경기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용감무쌍한 김정은비행대의 전투적기상을 만방에 떨치고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준비완성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6》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석 단감시대에 앞장서 정결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에게 출격명령을 내리시였다.

경기는 추격기조와 경비행기조로 나누어 진행되였다.

비행편대단위 쌍기로 리륙하여 목표구역에 접근한 다음 원목표에 각종 항공무장으로 공격과 사격을 진행하고 착륙하는 순차와 방법으로 경

기가 진행되였다.

순위는 각종 감시기재로 평가한 점수들을 종합하여 조별, 부대별로 결정하였다.

지심을 울리는 천동소리와 함께 시련진 불꽃기를 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구름속을 뚫고 만리대공으로 솟구쳐오른 영웅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달력과 배짱을 안고 타격목표를 향해 비수같이 날아들며 명중타격을 들이대였다.

2 번 으 로 계 속

